

단장주교의 8월 사목 서간

중미 국가들을 방문중인 단장
주교의 8월 사목서간이다.

2014-8-18.

나의영적자녀들이여, 예수님께서서나
를위하여여러분을지켜주시기를빕니
다!

나는중앙아메리카에서여러분에게편
지를씁니다. 오푸스데이의사도직이
뿌리를내리고있는이지역의여섯나라
를사목방문중입니다. "하느님의사업

을생각하면 '어안이병병'해집니다."라고하신우리의아버지의말씀이십분이해가갑니다.

그리하여나의마음에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이사랑스런나라들에서거둔사도직의결실에대하여하느님께깊은감사를드리는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파나마에이르기까지나와함께해주고있는여러분모두와같이내가본것은모든인종과여러언어의사람들에게서영적생활이꽃피는놀라운광경이었습니다. 이지역에서는스페인어외에도다양한토속어들이사용되고있었습니다. 이장관을바라보며성호세마리아께서자주하시던말씀을다시떠올립니다. "세상에는오직하나의인종만이있습니다. 하느님의자녀라는인종. 우리는모두같은언어를써야합니다. . . 예수님께서당신의아버지께쓰셨던언어. 여러분이지금기도중에쓰고있는, 머리와마음의언어, 즉관상의언어말입니다."[1] 우리의아버지께서또다른강론에서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모

든이에게 평화와 기쁜 소식, 생명을 주
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자만을 위하
서도 아니고, 빈자만을 위해서도 아
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을 위하
서도 아니고, 단순한 사람들만을 위
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우리 모두
는 같은 아버지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2]

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한 주 더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과 희생으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직업적 일과 요즈음 보내고 있을 휴가
의 시간을 봉헌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결실은 풍성해 집니다. 항상 교
황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달에
는 특히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위해
일치하십시오.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많은 선의를 가진 이들이 그
곳에서 교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상
기시키는 바와 같이, 8월은 마리아
축일로 풍

성합니다. 2일천사의모후기념일과 22일동정마리아모후기념일사이에, 5일성모마리아대성전봉헌 (눈의성모님) 기념일과무엇보다도성모님의영육이몽소승천하신대축일이있습니다. 그날성호세마리아와알바로주교, 하느님의현존안에기뻐하는하느님사업의전신자와일치하여우리는지극히티없으신성모성심께오푸스데이를새로이봉헌합니다. 이는우리의창설자께서 1951년 8월 15일로레토에서처음으로시작하신전통입니다.

그날전례에서는묵시록의독서를통해태양과달을발아래입고열두별로된왕관을쓴여인이그녀의태에서막나오고있는아들을집어삼키려는지옥의용과대결하고있는모습을보여줍니다.[3] 이형상은무엇보다교회를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영광스럽고승리에차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여전히고통안에있는교회. 교회는그러합니다." 프란치스코교황님은강론에서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교회가이미하느님의

영광과어떤방식으로연결되어있다면, 역사에서교회는계속적으로하느님과 그영속적적악마의충돌이불러오시고 난과도전을살아가고있습니다." [4] 이 장면에서매우분명한첫가르침을끌어 내봅시다. 우리가성화되는길인일상의 삶에서하느님께충실하고자하는휴전없는투쟁의필요성. 그의지상순례의 끝무렵에성호세마리아는하느님께 대한그의응답을요약하듯이이렇게썼 습니다. "이것이지상에서우리의운명입니다. 사랑으로마지막순간까지투쟁하는것. Deo gratias!" [5] 이나날의 투쟁이없다면 (거기에는승리도패배도있습니다. 패배하면우리는고해성사를통해다시일어납니다) 우리는교만한사람들과같이행동하는것입니다. 이투쟁에서이기기위해, 또는지더라도바로회복하기위해, 우리는하느님의은총과수많은전구자, 그중누구보다성모님의도움에의지할수있습니다.

"Auxilium Christianorum! 신자들의도움, 로레토의성모찬송은믿음에차서

이렇게말합니다. 어려움의시기에이 화살기도를되뇌어봤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녀다운세심함으로한다면 당신의거룩한어머니마리아의전구가 가진힘을발견하게될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은당신을승리로이끄실것입니다."[6]

성모님또한지상의삶에서어렵고힘든 시간을겪으셨습니다. 하지만항상나 자렛에서 fiat!라응답하신것을가슴에 새기시며매순간하느님께충실하셨습니다. 알바로주교는 썼습니다. "빛에서 또다른빛으로, 은총에서또다른더큰 은총으로, 어떠한망설임도없이마리아는하느님과일의치안에서부단히나 아갔습니다. 교회가이달의 15일에경축하는그특유하고놀라운사건이있기 까지말입니다."[7]

묵시록의여인은또한성모님의형상이기도합니다. 교회처럼 "마리아도어떻든이이중적조건을공유합니다. 물론 마리아는이미천국의영광에[8]

우리의 창설자의 모범을 따라 성모님에 대한 그의 큰 사랑에서 나온 알바로 주교의 또 다른 권고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여, 하느님과 우리 영혼의 적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도움과 하느님의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전구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고행,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자주 받는 것. 예수님께 충실해지고 싶다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께 이렇게 말합시다. '저의 어머니, 저는 당신의 아드님께 충실하고 싶사오니, 저를 위한 당신의 전구에 의탁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9]

성모 승천대축일은 성모님께 멋진 선물을 드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싸우며, 보다 확고하고 엄격한 회심으로 구체화된,

우리각자가받은그리스도인의소명에 충실할것을새롭게결심하는것. 따라 서양심성찰에, 특히고해성사전에, 큰 주의를기울입시다. 우리는성모님께 "우리의삶이하느님의것, 하느님을위 한것이되도록, 그리하여우리의삶이 하느님께언제나 fiat!라고응답하는그 리스도인의특유성을가질수있도 록"[10] 도움을청해야합니다.

나는알바로주교가크고작은모임에서 사람들에게하느님의도우심으로나날 의싸움에서승리하도록어떻게격려했 는지직접보았습니다. 보통이러한노 력은작은것들에있지만 (이웃에게작 은사랑을실천하는것, 시간을잘쓰는 것, 일을잘마무리하는것. . .) 이러한 전투에더큰노력을기울여서우리에게 영원한기쁨으로가는문을열어줄 "최 후의전투"에서승리할훈련이되게해야 합니다.

알바로주교는성호세마리아께서항상 강조하시고특히삶의마지막무렵에역

설하셨던 가르침을 명심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설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는 한번이나 두 번, 혹은 세 번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결정지을 마지막 전투에서이기기만 한다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이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생활에서는 어떤 전투에서도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아주 늙은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늙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기도 합니다. 아무도 언제 그들 삶의 계정을 하느님께 보여드리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전투에서 지는 사람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하느님과 우리 각자만이 아는 이 싸움에 당해서는 . . . 이 전투에 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수도 있다는 것,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나의 전 생애를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우를 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이여,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11]

알바로 주교는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이든 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Si Deus pro nobis, quis contra nos? [12]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알바로 주교는 성바오로의 말씀을 빌어 자주 물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데 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종종 인용하였습니다. [13] 알바로 주교는 둘 사이의 무기의 불균형을 지적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 갑옷으로 무장한 반면에 윗은 목동이 쓰는 돌팔매와 강바닥에서

주워모은돌맹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자기자신의힘이아니라하느님의 힘에온전히의탁함으로써다윗은그싸움에서승리할수있었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의복음은마니피캇을 담고있습니다. 이는우리에게희망을 말해줍니다. “희망은매일의삶에서삶과죽음, 선과악의충돌을경험하면서도그리스도의부활과사랑의승리를 믿는사람들의덕입니다. . . 성모의노래, 마니피캇은희망의노래이며역사를 걸어가는하느님백성의노래입니다. . .”

“이노래는특히오늘날그리스도의몸이 수난을겪는곳에서힘이있습니다. 우리그리스도인에게는십자가가있는곳에는어디에나항상희망이있습니다. 희망이없다면우리는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여러분자신으로부터희망을앗아가지말라고말하기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희망을빼앗기지 않기를! 이힘은우리의시선을하늘에 고정한채앞으로나아가게하는하느님

의은총이며선물이기때문입니다. 마리아는항상그러한공동체가까이에, 우리형제자매들가까이에있습니다. 그들과함께하며함께고통받고함께희망의마니피캇을노래합니다."[14]

이말씀은세계의다양한지역에서신앙때문에고통받고박해받는이들을위해기도할것을촉구합니다. 그들을내버려두지마시다! 우리의기도와희생으로, 물리적으로는멀리있지만, 우리는그들을도울수있고위로할수있습니다. 성인들의통공은그리스도의신비체인교회안에서우리를하나되게합니다.

이달 22일에경축할다른마리아축일을간과하고싶지않습니다. 모든피조물의모후동정마리아기념일입니다. 알바로주교는말했습니다. "나는그대관식을상상하면마치성부와성자와성령의복되신삼위일체께서천사들과성인들의모후를, 보다더완전하게, 사로잡으시는것같습니다. 너무도그러해서빛의폭발같은것이있었을것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 위로 들어올려져 그들이 더욱더 성모님을 기리고, 공경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5]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이 행복한 목표에도 달할 것입니다. 오류와 실수(내가 이미 말했듯이)가 있더라도 확고한 결심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해성사를 보고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천상의 어머니께의 탁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애 또한 천국의 영광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날의 삶에서 거룩함을 위해 투쟁하는 이 길을 따라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그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나자렛에서 보낸 시기를 통해 열어주신 길,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거룩한 창설자께서 거리낌없이 본받아 따라가신 그 길 말입니다." [16]

31일에 토레치우다드에서 나는 독신회원(Associate) 형제 두명에게 사제 서품을 줄 것입니다. 이 또한 거룩한 어머니 교회에 봉사하는 하느님 사업의 전적인 일치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바로 주교의 시복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향과 자유에 따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제안을 실천해보도록 권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총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마드리드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병, 노령, 일때문에 짬을 내지 못하거나, 여행비용을 댈 수 없다든지...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시복식과 후에 로마에서 있을 행사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고통의 봉헌, 시복식에 참석할 하느님 사업의 회원, 협력자, 친구들과의 영적 일치가 참으로 실질적인 기여가 되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영혼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것
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
합니다.

2014년 8월 1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서

여러분의 아버지

+ 하비에르

[1]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
나가신다』, 13항.

[2] 위의 책, 106항.

[3] 묵시 12:1-6 참조.

[4]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5] 성 호세마리아, 자필 메모, 1971. 12. 31.

[6]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180항.

[7] 알바로 주교, 사목서간, 1993. 8. 1.

[8]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9] 알바로 주교,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 1989. 8. 15.

[10] 알바로 주교, 강론, 1976. 9. 8.

[11]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기록, 1972. 4. 8.

[12] 로마 8:31.

[13] 1사무 17:39-51 참조.

[14]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15] 알바로 주교, 강론, 1976. 9. 8.

[16] 알바로 주교, 사목서간, 1993. 8.
1.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dev.opusdei.org/ko-kr/
article/danjangjugyoyi-8weol-
samogseogan/](https://dev.opusdei.org/ko-kr/article/danjangjugyoyi-8weol-samogseogan/) (2025-8-4.)